진로 솔루션 2019 vol. 04

춤, 노래, 연기의 종합예술가

뮤지컬배우

4월의 주제

직업 솔로몬 소개

주요 QnA

003 | 뮤지컬배우, 이것이 궁금해요! Top9

전문가 종합 솔루션

007 | 고등학교 2학년, 실기를 준비하기엔 늦은 걸까요?

011 | 뮤지컬 배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015 | 무대 위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4월의 솔로몬

| 진로솔로몬	**| 은혜정** 선생님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 진학·학습 솔로몬	**| 장광재** 선생님 (숭덕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 직업솔로몬	**| 정 연** 선생님 (뮤지컬배우 광화문연가 外 출연)
	강지혜 선생님 (뮤지컬배우 빨래 外 출연)
	박진상 선생님 (뮤지컬배우 시카고 外 출연)

| 직업 솔로몬 소개 |

정 연 님

"저는 연극, 뮤지컬 및 대중매체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기 및 노래를 지도하기도 하고요. 최근 활동한 작품으로는 뮤지컬 <광화문 연가>와 연극 <벙커 트릴로지>가 있습니다. 올해로 데뷔 12년 차 배우가 됐어요. 초, 중학교 시절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며 음악에 관심이 많아졌고, 재능을 발견하신 부모님께서 전폭적 지지를 해주셔서 예고 성악과로 진학했어요. 그때부터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악과 재학 중에 막연하게 '성악과가 되는 것이 내 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은 성악과가 아닌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연기하고 노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나 콩쿨 등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며 무대에 섰던 경험들이 뮤지컬이라는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초석 역할을 한 거 같아요."

김지혜 님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넘치는 배우 김지혜입니다. 현재 뮤지컬 <빨래>에서 희정엄마로 관객을 만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걸스 힙합 동아리 활동을 하며 춤에 빠져 대회도 나가고 학업에 소홀해질 때 사춘기까지 겹쳐 왔어요. 그 때 어머니께서 심리치료의 목적으로 연기 개인레슨을 받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나를 들여다보기 위해 시작했는데 배우다 보니 흥미가 생겨 공연장을 다니며 연극, 뮤지컬을 봤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을 동경하게 되었고, 나도 저 무대에 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배우를 전공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커리큘럼인 뮤지컬 '페임'에서 주인공인 카르멘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며 졸업 후 오디션을 보고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게 되었답니다."

박진상 님

"저는 국내외 대극장에서 뮤지컬 <뉴시즈>,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킹키부츠>, <알타보이즈>, <시카고> 외 다수 경력을 가진 뮤지컬배우 박진상입니다. **처음 뮤지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동아리 연합회 선생님께서 문화 체험으로 보여주셨던 '그리스'라는 작품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뮤지컬을 따분하고 지루한 예술로 생각했던 저에게 소름이 돋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춤만 추던 저에게 뮤지컬배우라는 직업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머나먼 드라마 속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춤에 매진하다가 춤 실력에 한계를 느꼈고, 문득 뮤지컬배우들이 춤추며 연기하는 모습이 생각나 홀린 듯 연기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연기를 시작하게 됐고 저는 춤을 추며 연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때부터 뮤지컬배우라는 직업에 흥미를 갖고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극단 오디션을 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뮤지컬배우, 이것이 궁금해요! TOP9

Q1
뮤지컬배우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뮤지컬배우는 **종합무대예술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대 위에서 대본에 쓰인 내용대로 연기와 노래, 춤으로 그 맡은 역할을 표현하는 종합예술인이에요.** 뮤지컬에서 '메인 캐릭터'로 불리는 주요 배역들은 노래나 연기에 더 많은 비중이 있고, 춤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역할의 배우들을 '앙상블'이라고 부릅니다. 중극장 이상의 규모를 가진 극장에서는 보통 '메인 캐릭터'와 '앙상블' 배우로 나뉘지만, 소극장 뮤지컬에서는 무대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수가 적고 그만큼 배우 수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정 연 님

Q2
뮤지컬배우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흔히 뮤지컬배우라 하면 '노래, 춤, 연기 다 잘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대중적으로는 춤, 연기, 노래가 뮤지컬배우가 되는 데 꼭 필요한 자질이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엔 춤으로만 뮤지컬에 캐스팅됐고, 그 뒤 부족한 부분을 위해 꾸준히 레슨을 받아 최근엔 연기적인 역할과 노래 위주의 역에도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뮤지컬에도 노래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등 다양한 역할이 존재합니다.** 또 특성에 따라 어떤 노래 스타일에는 성악과 같은 클래식함이 필요하고 팝적인 노래 스타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춤에서도 무용, 힙합, 얼반, 스포츠댄스 등 많은 장르가 존재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뮤지컬 배우에게 필요한 자질은 모든 사람과 장르를 포용하는 마음과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갈고 닦는 성실성이라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무대에 함께한다는 것은 그만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개개인이 되고 그걸 보는 관객들은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체육대회에서 마음이 잘 맞는 반이 시너지를 느끼고 애정하며 응원하는 친구들에게 힘을 얻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 박진상 님

Q3
노래, 춤 , 연기 모두 중요하다는데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뮤지컬배우는 노래, 춤, 연기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전공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필드에는 비전공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면 뮤지컬 관련 전공을 하면 더욱 좋겠죠. 저는 중앙대학교 연희예술학부 음악극과 노래연기 전공을 졸업했어요. 어렵지요? 대부분 제가 중대 나왔다고 대답하면 거의 모두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떠올리세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연극, 뮤지컬 관련 학과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 **전공을 선택할 때 그 학과의 커리큘럼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커리큘럼이 있는 전공, 혹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지혜 님

Q4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기 위해선 어떤 루트를 거치게 되나요?

보통은 오디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작품에 지원을 하고 서류 전형을 거친 뒤 2차, 3차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오디션에 합격하게 되면 그 작품의 일원이 되어 6주 이상의 연습 기간을 거쳐 작품을 올리게 되죠.** 보통 오디션에서는 노래, 춤, 연기를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훈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연극영화과 등 관련 학과에 진학해서 교육을 받고 데뷔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관련 학과에 진학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돼요. ● 정 연 님

Q5
오디션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오디션은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제일 많이 보는 오디션의 유형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3차 실기심사 그리고 합격자 발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작품마다 혹은 제작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오디션 형식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최종 오디션에 뽑힌 배우들을 모두 불러 워크숍 형식으로 오디션을 본다던가 혹은 콜오디션 이라고 해서 작품에 필요한 배우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서 오디션을 보러와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디션 정보를 얻는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Otr (www.otr.co.kr)과 스테이지톡(ww.stagetalk.co.kr)이 있습니다.** ● 김지혜 님

Q6
뮤지컬 공연을 올리기 위한 준비과정이 궁금해요.

좋은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연습기간에 성실하게 자기 것을 외우고 상대배우와의 호흡, 스텝들과의 조율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제가 공연 전에 하는 준비는 동료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저는 연습을 하면서 개개인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배울 수 있는 부분을 관찰하면서 동료와 서로 마음을 열 수 있게 유도합니다.** 뮤지컬에 따라 준비과정은 천차만별입니다. 뮤지컬 <킹키부츠>의 엔젤(드렉퀸) 역할을 했을 때는 비보이를 오래 했던 터라 신체 움직임이 투박하고 여성성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연습하면서 여성 트레이닝복을 다양하게 쇼핑하고 화장품과 속옷, 악세서리를 구매하여 꾸미고 개인 힐을 장만하는 등 제 인생의 이례적인 변화를 시도하며 준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는 정반대로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살을 10kg 가량 찌우며 운동을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처럼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기존의 '나'라는 인물보다는 그 작품에 인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성격에 맞게 체중 조절을 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까다롭고 작품 선정에 애를 먹기도 하지만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행복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박진상 님

Q7
뮤지컬 공연 말고 병행할 수 있는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연극 공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교직에서 노래와 연기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재 홈쇼핑 패널로 활동하는 배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을 하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주최되는 여러 행사에서 단기로 기획공연을 하기도 해요. 콘서트 형식을 가진 행사들이 많아요. 해당 기업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상연되는 기업극을 하는 배우들도 있어요. **배우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연출가 등 공연 staff를 병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정 연 님

Q8 뮤지컬배우는 어떻게 수익을 얻나요?

배우들은 대개 공연을 하고 페이를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 개인마다 페이를 어떻게 받을지 컴퍼니와 계약할 때 조율을 해요. 공연 회차 당 페이를 받기도 하고 공연기간을 따져서 월급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개인이 계약시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답니다. 그리고 연습기간에 페이를 주는 곳도 있지만 페이를 주지 않는 곳도 있어요. 연습페이가 없는 대신 공연페이를 더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연을 하지 않아 수익이 없는 기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 김지혜 님

Q9 활동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일과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뮤지컬배우로 활동하면서.가장 행복한 일은 커튼콜(극이 끝난 뒤 인사하는 일) 때 객석에서 즐거워하는 관객들의 표정과 피드백입니다. 그때만큼은 연습할 때 힘들고 공연할 때 지친 모든 순간이 글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날아갑니다. 제가 <뉴시즈>라는 작품을 할 때 배우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연습을 하고 공식 연습이 끝난 시간에도 퇴근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인지 공연이 올라가고 작품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관객이 많아져서 한 회 한 회 소중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공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활동하면서 힘든 점은 동료들이 부상당해 출연할 수 없게 되거나 제가 부상을 당해 다른 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볼때 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무력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을 잘 챙기고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 박진상 님

| 전문가 종합 솔루션 |

고등학교 2학년,
실기를 준비하기에 늦은 걸까요.

예술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집안의 자녀입니다. 예술계에 관심이 생길 거라곤 생각조차 못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대학을 뮤지컬과로 가려면 실기준비는 몇 살부터 해야 적당할까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늦은 걸까요?** 뮤지컬 관련 전공이랑 비전공자랑 많이 차이가 날까요?

#뮤지컬배우 #실기준비 #전공선택 #비전공자

"늦지 않았어요, 구체적 계획을 세우세요."

"지원 대학에 맞는 실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진로 전문가

은혜정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늦지 않았어요. 구체적 계획을 세우세요.

뮤지컬 전공 대학 진학 준비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지금 시작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운 마음이 질문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담을 신청한 용기를 보면 분명 하고자 하는 것을 꼭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이제부터라도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실천 계획을 세우며, 꾸준히 입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뮤지컬배우라는 멋진 꿈에 성큼 다가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뮤지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뮤지컬배우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왜 뮤지컬배우가 되고 싶은지, 왜 전공하고 싶은지 자신에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뮤지컬배우라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뮤지컬 전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로장벽이나 어려움에 쉽게 흔들리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뮤지컬은 춤과 음악으로 전개되는 일종의 연극입니다. 무대에서 배우는 춤과 노래로 연기하며 관객과 직접 호흡하고 소통합니다. **춤과 노래, 연기와 같은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관객과의 소통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커튼콜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모습 뒤에는 여러 배우와의 협력과 스텝들의 수고,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뮤지컬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공연예술입니다.** 개개인의 역량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때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빛이 나게 됩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뮤지컬은 실시간 라이브 공연입니다. 따라는 배우는 공연준비 시작부터 공연이 끝나는 시점까지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기에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이 필수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왜 뮤지컬배우가 되고 싶은지 분명해 졌다면 지금부터의 시간은 뮤지컬을 전공하기 위한 진학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합니다. 춤과 노래, 연기 부분을 어떻게 배우고 준비할지 구체적 실천 계획을 세우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부분과 진학하고 싶은 대학들에 대한 진로 탐색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공 실기 방법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다양한 인생의 경험과 풍부한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 연극, 영화, 방송 등 문화 전반에 대한 스크랩이나 독서, 기초체력, 발성 등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기 위한 큐시트를 짜서 실천하고 평가, 점검하는 시간으로 희망 플래너를 작성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찰 것입니다.

진학 전문가

장광재 (숭덕고등학교)

지원 대학에 맞는 실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표정 연기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뮤지컬 배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2 학생이군요. 뮤지컬 배우는 장르의 특성상 노래, 연기, 춤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고, 관련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대학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뮤지컬 관련 학과는 실용음악과나 뮤지컬학과 형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뮤지컬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원예술대학교(전북), 우석대학교(전북), 백석대학교(충남), 동신대학교(전남), 동서대학교(부산), 경성대학교(부산), 단국대학교(경기), 서경대학교(서울), 청운대학교(충남), 목원대학교(대전), 목원대학교(대전), 계명대학교(대구), 영산대학교 [제2캠퍼스](부산), 명지대학교(경기), 동의대학교(부산)

전형요소가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실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실기 방법이 대학마다 달라서 많은 대학을 일반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학과처럼 학생부나 혹은 수능처럼 공통의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실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경대학교의 뮤지컬학과는 1단계를 실기 100%로 선발하여 2단계에서 학생부와 실기를 반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실기 100%를 선발하다 보니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 응시기회가 사라지게 되어 1단계 실기평가가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가 됩니다.** 1단계의 실기시험은 자유곡 2곡(빠른 곡 1곡, 느린 곡 1곡)이며, 2단계 실기는 종합연기를 반영합니다.

반면 명지대학교의 예술학부(뮤지컬 공연 전공)의 실기 시험은 보컬과 댄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보컬은 뮤지컬 곡 중에서 자유선택 1곡, 지정곡 3곡 중 택일, 댄스는 자유안무로 전형을 실시합니다. 23명을 모집하는 동신대학교 뮤지컬·실용음악학과의 실기시험은 보컬, 댄스, 연기, 연주(악기) 중 한 가지를 자유 선택하여 자유 형식으로 실기평가를 실시합니다. **대부분 노래, 춤, 연기라는 요소를 포함하여 실기전형을 시행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대학마다 다른 실기요소로 진행되며,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실기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 전문가

김지혜 (뮤지컬 빨래 外)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우선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심지어 뮤지컬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지금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 탈춤을 배웠어요. 중학교 땐 육상선수로 활동하다 체고에서 스카우트를 받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땐 걸스힙합 동아리를 했었어요. 학업에 소홀해질 때쯤 어머니께서 장구와 연기를 배우게 해주셨는데 취미 삼아 잘 안 나가다가 정신 차려보니 고3이더라고요. 선생님과 진로상담을 하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뭐가 되고 싶니? 꿈이 뭐야? 하고 물어보셨는데 꿈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와서 나는 뭐가 되고 싶지, 그리고 무얼 잘하지?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남들보다 노래를 좀 더 잘하고 춤을 좀 더 잘 추는구나 그리고 나는 노래 부르고 춤출 때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나의 진로는 어느 쪽일까?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연극 영화과에 가고 싶다는 거였죠.

그러나 이미 다른 친구들은 예중, 예고를 다니고 전부터 준비하고 있을 텐데 나는 실기까지 7~8개월 남았는데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입시전략을 치밀하게 세웠던 것 같아요. 연극, 뮤지컬 관련 학과를 전부 다 적어놓고 커리큘럼부터 시작해 졸업생들이 어디서 활동하는지 등을 파헤쳤어요. 중요한 경쟁률도 빼놓지 않았죠.** 고민하다 중앙대학교 음악극과 노래연기전공을 알게 되었는데 개설된 지 10년이 안 되어 다른 학교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이었어요. 그때부터 입시 요강에 맞는 학생으로 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려서 양주별산대놀이를 배웠는데 기적처럼 이걸 써먹을 수 있게 되었죠! 양주별산대놀이는 연극적 성격이 강해서 한예종에서는 실기 3차 지정대본 중 하나이기도 해요. 저는 학부 수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교에서 뮤지컬에 대해 이론적, 실기적으로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성악, 뮤지컬 발성수업, 현대무용, 한국무용, 장면연기 등 배우가 되기 위한 기초학습부터 심화학습까지요. 졸업 후 제가 처음 했던 건 가족뮤지컬이었어요. 저도 프로들의 무대에 나가는 게 두려웠고 길도 잘 몰라서 우선 어떤 무대든 경험하자 생각해 아동극부터 마당놀이로 전국을 돌아다녀 보기도 했어요.

그래도 한편에는 항상 뮤지컬이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결국 오디션을 보러 갔고, 2015년 26살에 나이로 데뷔할 수 있었어요. 뮤지컬<로기수>로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뒤 <형제는 용감했다> 까지 하게 되면서 한국 뮤지컬 어워드, 예그린 뮤직 어워드에 두 작품 모두 신인 여배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었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주위에는 뮤지컬 전공이 아니지만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분들이 많아요. 미용을 전공했다가 뮤지컬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기 중 타악을 전공했던 친구들도 우연히 연기수업을 듣고 연기가 좋아져서 지금은 공연장에서 뮤지컬을 하고 있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하지 말아요. 우리 도전해 봅시다!

| 전문가 종합 솔루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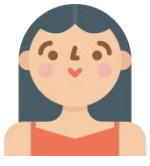
뮤지컬배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뮤지컬배우와 연극배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뮤지컬 배우는 어떻게 나누어지고 특화된 분야에 따라 맡는 배역이 다를까요? 무대에 서다 보면 맡는 배역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캐릭터 분석 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건 무엇이고 연기할 때 발성이나 감정선을 어디에 두는지 궁금합니다.

#뮤지컬배우 #연극배우 #세부분야 #캐릭터분석

"넓은 시선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세요. "

"춤, 노래, 연기를 병행하는 실력이 필요해요."



"뮤지컬이 MUSICAL인 이유"

진로 전문가

은혜정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넓은 시선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세요.

구체적인 질문들에서 뮤지컬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뮤지컬배우와 연극배우는 무대 위에서 공연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주로 춤과 노래로 스토리를 이끌어 가는 뮤지컬에 비해 연극은 대사와 동작표현으로 극을 이끌어 갑니다.** 뮤지컬의 꽃은 배우가 될 수 있겠지만 자세히 공연 무대를 살펴보면 하나의 뮤지컬이 공연되기까지 많은 사람의 수고와 손길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뮤지컬은 공연예술입니다. 배우 이외에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직업들과 일이 있습니다. 배우로만 집중되어 있는 진로 시선을 좀 더 넓게 확장시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뮤지컬이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시나리오를 위한 대본작가, 연출이나 감독, 노래를 위한 작곡가와 작사가, 전체 진행을 위한 오퍼레이터, 기획자와 투자자, 음향과 조명 기술자, 무대설치와 장식, 소품 디자이너, 의상과 미용 전문가, 공연 홍보기획가, 공연 마케터 등 정말 관련되는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을 탐색해보는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부분들이나 잘해낼 수 있겠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만큼 나의 진로 선택 영역은 넓어지겠지요?

뮤지컬에서 각 분야의 역할에 따라 하는 일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 하나의 공연을 위해 움직이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뮤지컬 배우는 다양한 장르의 배역들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배역이나 특정 캐릭터만 고집한다면 다양한 기회가 올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자신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도 선택하는 분야가 달라질 수 있듯이 배우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공연에 참여하는 기회도 다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뮤지컬배우가 되고 싶어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어린아이 같고 키도 150센티미터도 되지 않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족들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안될 것이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꿈을 믿어주었습니다. 모두의 만류에도 뮤지컬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백설공주', '구름빵', '정글북' 과 같은 아동 뮤지컬 부분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확실히 하는 주연배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 뮤지컬을 지도하는 안무가와 연출가, 제작자로서도 활동하고 있지요. **정해진 캐릭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점을 바꾸어보면 뮤지컬배우로서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더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어 넓은 진로 시선으로 뮤지컬영역을 확장하고 탐색하여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진로 전문가

장광재 (숭덕고등학교)

춤, 노래, 연기를 병행하는 실력이 필요해요.

뮤지컬배우와 연극배우는 조금 다른 장르입니다. 연극배우는 주로 연기에 집중하는 반면 뮤지컬배우는 노래와 춤, 연기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극배우와 뮤지컬배우가 극명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극과 뮤지컬을 겸하는 배우도 많으며 뮤지컬 배우인 이용준 씨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다가 26세에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기도 하였습니다.

뮤지컬배우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능력은 춤과 노래, 연기 실력입니다. 최고의 배우가 아닌 이상 작품에 맞는 배우들을 선발하기 위해 오디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디션에 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데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관련 대학에 진학해야만 좋은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뮤지컬 관련 학과나 성악, 실용음악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뮤지컬을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는 과정을 통해 데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뮤지컬 관련 학과의 선발 인원수가 적다 보니 해마다 경쟁률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서경대학교 뮤지컬학과의 수시 전형은 38.5:1, 명지대학교 예술학부 뮤지컬공연전공의 수시 실기 전형은 46.0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대학의 경쟁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낮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도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전년도 경쟁률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뮤지컬 관련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실기 준비학원에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뮤지컬 관련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예체능 관련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꾸준하게 발성이나 연기 등을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뮤지컬 관련 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교육과정에서 발성이나 호흡, 뮤지컬 음악을 배우고 현대무용, 발레, 재즈댄스 등의 춤과 연기 실력을 학습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 전문가

정 연 (뮤지컬 광화문연가 外)

뮤지컬이 MUSICAL인 이유

뮤지컬과 연극의 차이는 극 중 노래가 개입을 하느냐,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요. 물론 연극에 비해 춤을 많이 추기도 하지만 연극에서도 장면의 전달로써 춤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뮤지컬과 연극의 확실한 차이는 장면의 얼개들에 노래의 개입이 주가 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MUSICAL인 거죠. 그러므로 뮤지컬배우들은 반드시 노래를 잘해야겠죠. 예를 들어 <레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등의 **송스루 뮤지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사를 '노래'로 말하기 때문에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 하더라도 노래를 잘하지 못하면 뮤지컬 화법대로 그 대사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격입니다. 뮤지컬배우는 노래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해요.** 그렇다고 연극배우들이 모두 노래를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연극 배우 중에서도 노래를 잘해서 뮤지컬을 병행하는 배우들이 많아요.

주로 대극장 뮤지컬에는 '메인 캐릭터' 라고 불리는 주요 배역이 노래와 연기 파트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노래나 연기가 특화된 배우들이 주요 배역을 맡게 되고 춤에 특화된 배우들이 앙상블을 맡게 되죠. **하지만 작품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춤을 잘 춰야 하는 역할이 주인공 배역이라면 노래보단 춤에 특화된 배우가 주요 배역을 맡게 되겠죠. 작품에 따라 각자 특화된 배우, 배역의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소극장 뮤지컬은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소극장의 작품들은 보통 대극장 작품의 배역 수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아서 배우의 수도 적어요. 그래서 메인 캐릭터와 앙상블을 나누기보단 어느 한 배우가 여러 가지 멀티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 분야에 특화된 배우를 찾기보단 춤, 노래, 연기를 두루 잘하는 배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죠.

캐릭터를 분석할 땐 작품 전체의 내용에서 내가 맡은 캐릭터가 전달해야만 하는 큰 선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 다음, 극 중 만나는 다른 캐릭터들 간의 갈등을 이해해야 하죠. 그런 이해 없이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면 그 상황과 그 안에서 빚어진 갈등에 맞지 않는 소리로 노래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뮤지컬 배우는 가수와는 조금 다르게 작품 내용의 각 상황과 캐릭터에 맞게 소리를 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캐릭터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뮤지컬에서 노래는 대사예요. 또 감정이고요. 그저 예쁘거나 멋진 소리로만 일관해서 노래하는 것은 그 작품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 전문가 종합 솔루션 |

무대 위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뮤지컬배우가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고 연기하는 게 두려워요. 친분 있는 사람들 앞에선 떨리지도 없고 잘되는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선 긴장돼서 아무 말도 못 해요. 사람들에게 제 끼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겨낸 동기나 긴장감을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뮤지컬배우 #무대공포증 #긴장감#진로장벽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경험의 횟수만큼 떨림은 사라질 겁니다."

"무대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큰 발전 가능성"

진로 전문가

은혜정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위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과 방법을 찾고자 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더구나 무대 위에서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뮤지컬은 배우의 예술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연예술이지만 배우의 긴장이나 감정, 실수들도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됩니다. 실수를 줄이고 완성된 공연을 위해 배우들은 정말 최선의 노력으로 연습하게 되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모두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인 중에서도 무대나 대중 앞에 서는 일이 두려워서, 혹은 실수의 경험들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 대중 앞에 서는 일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마음관리와 단계별 훈련을 통해 무대 공포증이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겨낼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야말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무대공포증, 무대에 서면 떨리는 두려움 등은 내가 완벽하게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막 뮤지컬배우의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니 실수도 할 수 있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일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완벽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천천히 단계별로 연습에 연습을 더한다면 어느새 부족한 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멋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대에 서기 전 그 동안 힘들게 연습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공연에서 해내야 할 부분들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잘 될 거야, 잘 해낼 수 있어'와 같은 좋은 결과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무대 위에서의 실수들과 함께 몰려왔던 공포심과 두려움에 대한 나쁜 기억들은 최대한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보다 잘해낸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작은 실수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충분한 연습을 통해 다시 도전하다 보면 대중과의 소통이 쉬워지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하다는 사실을요!

진학 전문가

장광재 (숭덕고등학교)

경험의 횟수만큼 떨림은 사라질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결코 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뮤지컬 배우가 오디션을 통과하여 작품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막상 무대에 나가면 여유 있게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뮤지컬 배우도 아니고 이제 고등학생인 입장에서 본다면 무대에 서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긴장되고 떨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공연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떨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배우가 되고자 결심하였다면, 앞으로 수많은 시간을 춤과 노래, 연기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충분히 숙달되고 익숙한 상태가 되는 수준이라면 공연을 위해 무대에 선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떨릴 일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남은 학창 생활을 효율적으로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한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춤, 노래, 연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워야 할 기본적인 학업역량을 충분히 습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뮤지컬 관련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댄스팀을 조직하여 꾸준하게 춤을 추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교 축제와 같은 행사활동 시 무대에서 마음껏 끼를 발산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무대 공포증은 직접 공연에 참여해 보는 경험과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공연한다는 의미도 크겠지만, **뮤지컬 배우가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으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직업이 경험을 통해 숙달된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유독 뮤지컬 배우는 무대 위에 서보는 경험의 횟수가 무척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좁은 무대에서의 공연 경험을 통해 진정한 배우가 되어가는 과정을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 전문가

박진상 (뮤지컬 시카고外)

무대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큰 발전 가능성

모든 공연이든 첫 공연과 나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항상 두렵습니다. 무대에서의 연습은 그리 오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연습할 땐 관객이 없으므로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실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킹키부츠>라는 작품의 첫 공연 때 너무 많은 관객들의 기대를 받고 지난 시즌에 공연을 했던 선배님들이 공연을 보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감과 긴장으로 인해 힐을 신고 예쁜 모습을 연기 해야 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바닥에 딱딱딱 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토크 콘서트에서 처음 솔로 넘버를 부르게 되었는데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날 정도로 떨려서 넘버를 겨우겨우 끝마치고 어지러움을 호소할 정도로 무대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대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시기는 그 무대가 무대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익숙해졌을 때입니다. 무대가 온전히 그 상황에 있는 공간이고 스스로 그 인물이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황이 바뀌는 오디션 현장에 가면 그 현장과 비슷하거나 제가 연습했던 작품에 가장 용기 있었던 캐릭터를 나라고 생각하고 오디션에 임하면서 이겨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저는 결혼식 축가 무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사람들 앞에서 노래에 대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선생님들에게 레슨도 받고 보고 들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용기와 안정된 발성을 찾아 긴장감을 줄이게 됐습니다.

무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가장 큰 발전 가능성입니다. 무대는 아무나 설 수 없는 곳이고 그 기회 또한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만큼 책임감이 강해지고 소홀히 할 수 없죠. 경험이 많아지고 익숙해지면 오히려 지금의 긴장감이 그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지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긴장감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생각하고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끼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갈망해보세요. 예를 들면 '세종문화 대극장에서 나의 춤과 노래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 라던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춤, 어떤 노래인지 어떤 느낌을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더 구체화해보고 그것을 위해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서 관중들 앞에서 공연하고 연기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때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뮤지컬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